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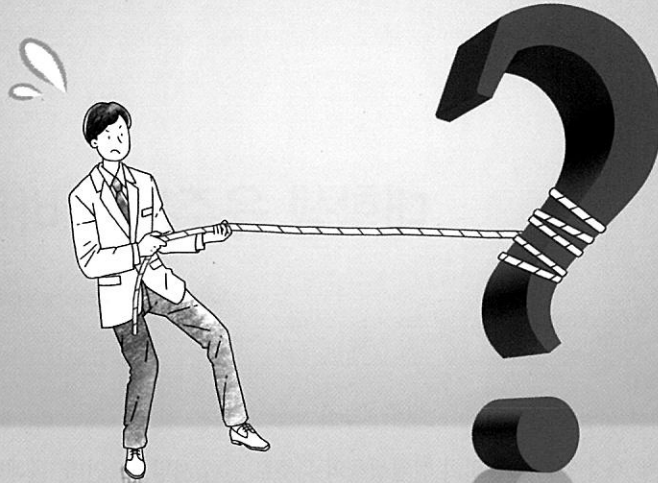
# 대학생 음주문화 바로보기

김승수 | 한국대학생알코올문제예방협회 사무국장

해마다 대학가에선 신입생 입학시즌이 되면 음주와 관련된 사건·사고는 매년 비슷하게 반복되어 일어난다. 그 가운데 가장 안타까운 일이 신입생들의 음주로 인한 사망사고인데, 올해도 벌써 세 명의 신입생이 음주로 인해 안타까운 목숨을 잃었다고 한다. 이런 허망하고, 안타까운 신입생의 음주로 인한 사망사고를 기점으로 각종 방송매체에서도 꾸준히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잘못된 대학생들의 음주문화를 비판적 시각으로 보도하고 있는 요즘이다. 물론 과거에 비해 대학 구성원들의 자정노력으로 대학생들의 음주에 대한 행태는 조금씩 변화되고 있긴 하지만 학기 초 각종 신입생환영회를 시작으로 지속해서 이어질 축제, MT, 체육대회 등과 같은 많은 학교 행사에서는 큰 변화는 없어 보이는 것은 사실이다. 이런 대학가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음주문제의 근원과 더딜지는 모르지만 의미 있는 변화를 위한 대안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고자 한다.

## 반복되는 대학생의 기형적 음주문화

보이는 수는 줄어들었지만 일명 학과·학교의 전통이라는 이유로 일부대학에서는 여전히 강압적으로 '사발식' 같은 통과의식은 당연하다는 듯 이어지고 있다. 물론 이러한 과정을 무사히 넘긴 선배의 입장이나 대학을 졸업한 성인의 입장에서 본다면 재미있었던 기억으로 생각할 수도 있겠으나, 자신의 주량도 정확히 알지 못하고 이 상황을 맞이하게 되는 당사자 즉, 신입생의 입장이라면 이야기는 조금 달라질 것이다. 자연스럽게 통과의식으로 받아들이는 신입생도 있을 것이고, 견디기 어려운 이 상황에 대해 겁을 먹은 신입생, 때론 개인에 대한 존중 없는 불합리함에 화가 나는 신입생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런 불합리한 과정이라 생각하며 무사히 의식을 넘긴 신입생들이 이후 선배의 입장이 되었을 때, 이런 문화에 대한 개선보다는 여전히 전통이라는 이유로 자연스럽게 반복된다는 것이다. 신입생환영회, MT, 축제에서 보여 지는 대부분의 음주문화는 이런 현상이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결국 대학생의 기형적인 음주문화는 이렇게 반복적인 과정을 거쳐 겹겹이 퇴적되어 형성되었다 볼 수 있는 것이다. 개인의 자유와 민주주의에 대해 충분히 학습한 신입생들이 선배들의 술잔 앞에서는 개인의 자유가 인정되지 않아도, 더욱이 선배의 강요와 억압과 같은 비민주적 행동에 대해서도 아무 의식 없이 이러한 행태가 매년 반복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누구의 잘못이나를 따지기 이전에 기형적인 음주문화가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지속되는 이유에 대해 생각해 보면 말 그대로 본 것이 이게 전부이기 때문일 것이다. ‘아는 만큼 보인다.’, ‘받은 만큼 돌려준다.’는 말이 있듯이, 자신들이 경험한 통과 의식이 기형적이라는 의심보다는 학교·학과의 전통이니까 당연히 ‘해야 하는 것’으로 인식하여 후배들에게 격한 애정 표현을 매년 되풀이하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만일 학과·학교의 이벤트에서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음주문화, 각자가 원할 때 원하는 만큼 자기의 방식대로 마실 수 있는 문화가 전통으로 형성되어 있었다면 지금의 음주문화 또한 이렇게 기형적으로 고착되지만은 않았을 것이다. 당연히 신입생들은 선배들로부터 받은 좋았던 감동을 후배들에게 되풀이 하게 될 것이고, 이러한 반복이 새로운 문화를 만드는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기형적 음주문화에 대한 연결고리를 끊고, 새로운 변화를 위해서는 무엇이 옳은지에 대한 인식과 함께 작은 실천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 대학생 음주문화를 개선하기 위한 법적규제와 그 실효성에 대한 의문

대학생의 기형적인 음주로 인한 문제가 반복됨에 따라 대학 내 음주문제를 개선하고자 한 국회의원이 2011년 국민건강증진법의 일부개정안(2011.10.18)을 발의한 적이 있었다. 개정 내용은 교육적 목적 외에는 초·중·고·대학교 내에 주류 반입을 금지하고 위반 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지는 내용이었는데, 그 실효성에는 많은 의문이 들었다. 물론 대학은 공부하는 곳이고, 타인에게 주는 피해를 줄이고자 제안하는 법적 규제는 선언적이고, 상징적인 의미는 있겠으나 감시할 수 있는 행정력에 대한 의심과 자칫하면 법의 남용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 무엇보다 대학은 교수, 교직원, 대학생로 구성되어있는 집단이고, 대학구성원 상호간의 협의와 자율로 이루어질 수 있는 능력이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법적으로 강제하겠다는 의도에 대해서는 충분히 납득이 되지 않는 것이 사실이다.

또한 교내에 주류반입을 금지하고 음주를 제한하는 것이 음주문제예방에 일부 영향을 미칠 수는 있겠으나, 실제 학생들의 심각한 음주문제는 교내보다는 교외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일부 대학의 경우 대학 내 주류 반입 금지 및 음주가 교칙으로 금지되어 있는 신학대학마저도 축제 때 교외에서 술을 마시고, 교내로 들어가는 경우도 많이 있다. 학교 잔디밭이나, 공개적인 공간에서 대놓고 술판을 벌이는 경우는 과거보다 많이 줄어 대학 전체의 음주가 줄은 듯 보일지는 모르나, 통계치로 보면 여전히 대학생들의 음주율에는 큰 변화가 없는 것 또한 학교보다는 그 이외의 장소에서 술을 마시고 있음을 예상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결국 구성원의 합의 되지 않은 국가의 강제적인 법적 규제는 그 실효성이 많이 떨어질 것이며, 더군다나 규제를 피해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과 새로운 기형적인 형태로 나타날 수 있음을 또한 인식해야 할 것이다.

대학생 음주문화의 개선을 위해서는 대학을 구성하고 있는 구성원들의 기형적인 학내 음주문제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기반으로 음주문제에 대한 개선 의지 및 방법에 대해 구체적인 결정을 통해 자체적인 정화작용 및 실천이 일어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최근 일부대학에서는 이런 대학생의 음주문제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대학 구성원들과의 합의를 통해 ‘술 없는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술 없는 축제’를 개최하여 새로운 대안을 시도가 그 예가 될 수 있을 것이며, 어떠한 결정이든 학교 구성원이 충분한 합의를 통해 결정한 실행이 법적 규제보다는 그 의미와 실효성이 높을 것이다.

## 사람이 술을 마신다

술은 담배와 달리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 폭음과 과음은 신체적·정신적·사회적 문제를 초래할 수도 있으나, 적정량의 음주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즐거움을 주고, 인간관계에 윤활유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상상을 해본다. 대학에서 합법적으로 술을 처음 접하는 대학생들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술이 주가 아닌 사람이 주가 되는 관계의 문화를 경험하게 된다면, 그리고 때와 장소를 가려서 음주를 하는 습관이 만들어진다면 앞으로의 인생에 있어 술은 순기능의 역할을 톡톡히 하게 될 것이다. 또한 앞서 사례를 든 대학의 '술 없는-' 행사가 조금 더 발전하여 '술이 있든, 술이 없든' 대학생들이 자신의 취향에 따라 선택하고, 결정하여 즐길 수 있는 문화가 만들어지고, 기형적인 음주문화에 대해 학생 스스로 문제로 인식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진다면 대학가의 음주문화는 조금은 더디겠지만 의미 있는 변화와 개선을 경험할 수 있을 것이다. 과거 어느 학교에서 수학여행도중 학생의 부주의로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다고 한다. 사고가 난 학교장은 수학여행에서 돌아온 후 수학여행 자체를 없애버렸다고 한다. 물론 그 학교에서는 수학여행을 가지 않기에 당연히 수학여행과 관련된 안전사고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너무 극단적인 처방은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 사이에 불만이 될 수 있으며, 대다수의 학생들에게는 학창시절 추억꺼리를 없애버릴 수도 있다.

대학생의 술과 관련된 문제도 비슷하게 설명이 가능할 것이다.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및 개강 후 각종 행사에서 음주와 관련된 사고가 일어난다 해서 대학의 행사를 폐지하거나 없애버린다면 어떨까?



당연히 근원적인 사망·사고는 예방할 수 있겠지만 행사의 목적인 선배와 후배의 만남과 학교에 대한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기회 또한 없어지게 되는 것이다. 무분별한 음주로 인해, 많은 사건사고가 일어나는 것을 막기 위한 극단적인 결정이 대학가의 변형된 음주문화를 양산할 가능성 또한 배제하긴 어려울 것이다. 술 마실 기회를 차단한다는 것이 문제의 해결점이 아니라 인간사에서 계속해서 만나게 될 술을 제대로 잘 만나게 하는 노력에 대해 고민해 봐야 하는 이유이다.

궁극적으로 대학에서는 '술 없는-' 행사를 통한 일시적인 문제의 해결책보다 학생들이 술을 올바르게 선택하고 판단할 수 있는 교육과 프로그램을 통해 나아가 대학생 뿐 아니라 대학구성원 모두 올바른 음주문화를 만들어가는 과정에 같이 참여하고, 변화를 공유한다면 기형적인 음주문화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결국 술이 아닌 사람이 중심이 되어 스스로 선택

하고, 상호 존중하는 문화를 만드는 노력을 시도할 때 대학의 변화와 함께 우리 사회의 건전한 음주 문화는 새롭게 만들어지게 될 것이다. 대학생들의 건강한 힘을 믿는다.

### 윗물을 맑게 하자

대학생들은 대학 이전 자신의 부모와 성인들을 통해 음주에 대한 간접적인 경험을 하게 된다. 술은 언제마시고, 어떻게 마시는지를 주변의 어른들을 통해 지속해서 봐 왔을 것이고, 일부는 청소년 때 그 시도를 몰래 해봤을 수도 있다. 대학생들의 음주문제를 꼬집기 전에 과연 성인들은 문제가 없는지에 대한 반성이 필요할 것이다. 어른들은 여가시간 어떤 놀이를 하고, 언제, 어떻게 술을 마시고 있는지를 곰곰이 생각해보면 크게 자랑할 꺼리가 없을 것이다. 일상 또는 여가시간 성인들의 놀이문화를 보면 다양해보이긴 하지만 그 마지막은 늘 술이 함께 하고 있으며, 신입직원환영회, 회식, 워크숍과 같은 행사를 보더라도 그 양상은 크게 다를 바가 없을 것이다. 술과 함께 한다는 것이 문제가 있다는 것이 아닌 술을 제대로 활용하고 있지 못함을 이야기 하는 것이며, 대학생들은 이런 기성세대의 잘못된 음주문화를 아무런 여과 없이 그대로 답습하고 있게 되는 것이다. 대학가에서도 폭탄주가 돌아가고, 고성방가, 음주운전, 지각 또는 결석으로 인한 학업 손실이 모든 것이 성인의 음주와 너무 유사해 보인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라는 말이 있듯이 기성세대의 올바른 음주문화 정착 또한 그 아래의 대학생들에게 좋은 본보기가 될 것이다. 아이가 어른에게 인사를 잘 하기를 바란다면 부모님부터 주변 어른에게 인사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 즉, 대학생들의 음주문화를 부정적으로 비판하기 이전에 전반적인 음주문화를 긍정적으로 바꿀 수 있는 기성세대의 변화노력 또한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

